

데스크시각

김우성



[오피니언]

'경제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가 3일 IMF(국제통화기금) 약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사실상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은 IMF로 넘어갔다. 주권국가 국민으로서 분루를 삼키며 지켜볼 수밖에 없는 치욕의 현장이었다.(중략) 이날 우리는 저도 자를 잘못 선택하면 국민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목격했다.(하략)'

한국이 IMF에 접수된 지난 1997년 12 월 3일, 한 신문이 '경제국치'를 통탄한 사실의 한 대목이다. 기억조차 하기 싫은 IMF를 새삼 떠올리는 것은 요즘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판문을 보고 있노라면 어찌면 '정권의 무능함'이 그때와 똑같을 수 있을까 하는 한심함이 앞서서다.

정권의 무능함이 빛은 참사

"도둑을 맞으려니까 개도 안 찾는다"라는 대통령의 밀언 이후 벌어진 여야간 '개싸움'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찾고 있었다. 그럼에도 무능한 정권은 도박을 통해 서민들의 피를 뺏아

먹고 말았다. '개'는 97년 외환 위기 때도 연초부터 찾고 있었다. 1월, 한보철강의 부도를 필두로 삼미, 진로 등 대기업 부도가 연쇄적으로 터졌다. 7월에는 재계 서열 8위의 기아

IMF 닮은꼴 '바다이야기'

까지 무너졌다. 한보가 외환위기의 서막이었다면 기아는 클라이맥스였던 셈이다.

대외에서의 개짖는 소리도 마찬가지였다. 7월 태국 바트화 폭락, 8월 인도네시아 푸피아화 폭락, 10월 홍콩증시 대폭락 등, 홍콩증시의 파장을 즉각 국내 증시 폭락으로 이어졌다. 외국의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신용등급을 잇달아 하향 조정했고, 외국인들은 한국 투자금을 대거 빼내갔다.

10월 한달간 외국인 인출액이 무려 1조 원에 달했다. 11월 5일 미국계 블룸버그 통신이 "한국의 가용외환보유고는 2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한데 이어, 세계 언론들도 한국 경제위기를 대서특필했다. 한국은행의 외환대출지에서도 그해 3월 '비상시 IMF구제금융도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리는 등 관련 보고를 수차례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위기 신호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경제국치' 직전까지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감을 잡지 못했다. 11월 7일 "IMF에 갈 수도 있다"는 부총리의 보고를 받고 다음날 한은

총재에게 확인한 후에야 "설마 IMF까지 가겠나"라는 안이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후문이다. 냉엄한 국제현실을 외면하고 무능과 독단으로 일관, 결국 국가경제를 파탄시켰다.

작금의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판문에서 보여준 정권의 무능함도 IMF 때와 별반 차이가 없다. '바다이야기'는 2004년 12월 문광부 산하 영상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상품권 인증제 도입, 상품권 지정제 전환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해준 정부의 '도박육성정책'을 등에 업고 마치

포르탈린을 먹은 '괴물'처럼 대도시, 농어촌에 확장되는 것이다. 2005년 1월 5일 미국계 블룸버그 통신이 "한국의 가용외환보유고는 20억

총 등 전국을 짊어져 버렸다. 서민을 비롯 주부, 노인, 학생들까지 도박의 그물에 걸려 인생을 거덜내 버렸다.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그 심각성을 수차지적했고, 그토록 많은 서민들이 통곡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데도 유독 대통령만 물렀단 말인가. 한 애당 의원의 지적처럼 개는 2004년 2월부터 이미 목이 아프도록 짖고 있었는데도 청와대만 못 들었다는 것인가.

국민은 정책 결과 먹고 살아

2002년 대선 당시 '서민 대통령'을 갈망하며 몰표를 준 서민들을 '바다'로 내몰아서야 말이 되는가. 오죽했으면 고건 전총리가 "청와대, 문광부, 국회, 정보기관 어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작동된다면 서민 가정을 파탄내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을까.

이번 사태가 수많은 국민들에게 좌절과 아픔을 안겨준 IMF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국민은 정부 정책의 결과를 먹고 산다'고 했건만 왜 우리는 유능한 정부 한번 가져보지 못하는 것일까. 한국 경제의 글로벌화를 모토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제대로 알고나 하는지 의구심까지 드는 요즘이다.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온펜칼럼

임명재



우리는 현재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에 대한 갑론을박을 격렬히 벌이고 있다.

작통권이라는 것은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군을 지휘하여 승리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권리로 전쟁의 시작과

획득 그리고 종결까지를 일컫는 것이다.

작통권 환수에 대해 한나라당과 일부 세력은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결정이며 미국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한다. 작통권을 환수하게 되면 마치 당장이라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주장한

다.

보다도 몇십 배나 강력한 중국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대만의 작통권은 미국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조건은 강력한 군사력 이전에 훌륭한 지도자와 일치단결된 국민의 힘이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 그들의 이익을 위해 결정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그들에만 몸을 숨기려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차리리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자고 했던 것과 크게 다름이 없는 것 같다.

특히 군에 몸을 담으며 우리를 지켜왔던 사람들은 작통권을 반대하는 것에 실망이 크다.

이순신 장군은 절대 열세인 군사력을

기고

정재성



광양민권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이 선결요건인데 그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물 공급시설과 수자원확보이다.

광양 3단계광역수도 사업으로 중

설되고 있는 광양민권의 물 공급시설은 수원이 확보되어야 제기능을 발휘하는 데 광양시 진상면에 소재한 수어댐이 1978년 완공이후로 광양민권 물 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건설 초기의 수어댐 운영은 수자원 확보에만 중점을 두어 지역주민과 다양한 갈등을 겪어야 했으나 근래에는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운명을 추구하고 있다.

고 흥수조절기능이 없어 다목적댐과 같이 큰 흥수조절은 어렵지만 6월~9월 풍수기에 물 공급시설을 활용해서 사전에 섬진강 등으로 방류를 실시하는 다목적 운영으로 효율적인 흥수량을 최소화하고 있다.

현재 공시중인 수어댐 보조여수로도 집중호우로 인한 흥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7월 태풍 "에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한 보조여수로 가물막이 불과와 방류량에 따른 흥수피해는 가물막이의 설계빈도와 집중호우의 규모를 보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수어댐이 없었다면 수어댐 최대방류량은 당시보다 60% 이상 커졌고 수어댐이 있더라도 보조여수로 공사와

작통권 환수 논란 유감

미국은 한국이 충분히 작통권을 환수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항미동맹의 틀은 견고할 것이라고 발표하는데 이들은 막무가내로 환수하지 말라고 연일 목청을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자. 환수를 반대하는 측은 미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이고 그들의 지휘 아래에 있으면 절대 안전할 것이다.

그런데 왜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실제적인 패배를 당했을까? 당시 북베트남의 작통권이 중국이나 소련에 있었을까?

미국의 코앞에 있는 쿠바는 어찌하여 지금까지 국가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소련과 싸워 결국 물리친 아프카니스탄의 작통권은 누구에게 있었나? 중국과 대결하고 있는 대만의 작통권은 현재 미국에 있는가? 아마도 북한

극복하고도 위대한 승리를 참조했는데 그 후손들은 이처럼 훌륭한 장병들과 기술로 스스로 부족하다면 결국 자기 얼굴에 침범가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불필요하게 험난을 필요 없고 이왕 우리와 미국 간의 협상을 진전되고 있다면 이제는 언제 어떻게 국가의 안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환수를 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면에서 작통권을 미국에 빌려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에 머무르면서 발전되고 높아진 국제위상을 갖춘 대한민국이 이끌어나갈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화시랑시민연대대표·2005년 12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 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입니다.

학교운동장서 운전연습 해서야

학교 앞을 지나다 자동차 3~4대가 들어가길래 살펴보니 젊은 사람들이 짜를 지어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 운전 연습을 하고 있었다.

한 여성이 학교 운동장을 한 두 바퀴 돌더니 곧이어 다른 여성의 운전석에 앉아 번갈아 운전 연습을 하는 것이다.

당연히 운동장 바닥은 자동차 바퀴 자국으로 양망이 됐다. 그들이 있던 자리엔 담배

꽁초와 과자 봉지, 휴지 등 쓰레기도 널려 있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고 물었더니 남학생이 한 여자 친구가 자동차 운전 면허를 1주일 전에 땄는데 연습하려 했다고 했다.

학교 운동장을 운전면허 연습장으로 사용하면서도 전혀 거리낌 없이 대답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정점순·목포시 대양동

약속시간 안지키는 참석자에 예약석 줘야하나

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학부모 입시 상담 겸 설명회가 있다고 해 정해진 시간보다 5분 정도 일찍 도착했는데, 상담이 열리는 것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었다. 행사장 자리가 텅 비어있었기 때문이다. 고작 5명 정도가 앉아 있을 뿐이었다.

한 선생님에게 물었더니 며칠 전 학교측에서 참석 여부를 확인, 좌석을 배치했다는 것이다.

한참 지나고서야 학부모들이 슬금슬금 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시설

충격적인 폐광 주변 농산물 중금속 오염

폐광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상당수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허용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조사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폐광 지역에서 재배된 농산물이 그간 해당 지역뿐 아니라 인근 시·도 등 각지로 팔려 나가 소비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금속은 몸속에 들어가면 쉽게 분해되거나 배설되지 않고 쌓여 '이타이아 타이병'이나 간경화와 같은 치명적인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폐광 지역의 중금속 오염 정도를 정밀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 농산물의 4분의 1인 25.9%가 납 허용기준치를 넘어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식인 쌀의 경우 27.5%와 8.1%가,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추는 27.5%와 28.1%가 각각 납과 카드뮴 허용기준을 넘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전국 44개 폐광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 정도를 정밀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 농산물의 4분의 1인 25.9%가 납 허용기준치를 넘어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식인 쌀의 경우 27.5%와 8.1%가,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추는 27.5%와 28.1%가 각각 납과 카드뮴 허용기준을 넘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법조계 '전관예우' 대책없는 '고질병'인가

법조비리의 고질적인 연결고리인 '전관예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실망을 주고 있다. 광주지법 구속사건 수임 건수 10위 내의 변호사 가운데 65%가 해당 법원과 지검의 전관 출신이라고 한다. 법조비리 때마다 전관예우 철폐 등 사법개혁을 외쳐온 대법원과 검찰의 다짐이 무색해지는 현상이다.

전관예우의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 법원과 검찰이 판사나 검사를 지낸 변호사들의 수입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하거나 판결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이다. 법조계가 제 식구를 감싸는 풍토에선 변호사 수임료는 빨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사법불신을 부추기는 근본 요인이라는 점이다. 재판 결과가 인맥이나 정설, 친탁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에서 어느 누가 검찰과 법원을 신뢰하겠는가. '전관예우'에는 사건 브로커까지 끼어들어 법조비리가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법조계 구성원의 의식개혁도 뒤따라야 한다. 국민은 법조계에 종교지도자와 같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전관예우'를 극복하면 빠를 깨는 자기 반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는 또 골프는 자가 험난한 경기로 전관예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린의 신사' 바이런 넬슨이 세운 불멸의 업적 11연승에는 못미치지만 현재 지구상에 감히 대적할 만한 인간이 없는데, 세계 골프의 1인자임을 막론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우즈의 이같은 최고 성적 달성을 공로자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그의 캐디 스티브 윌리엄스다. 타이거 우즈가 백(bag)을 맡길 정도라면 두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실제 그는 세계 최정상의 캐디다.

차라리 "골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웃음이다. 웃지 않으면 물게 될 테니까"라고 말한 캐디 니콜로스의 금언 한마디에 새기는 것이 편할 듯 하다.

그리고 노먼과 레이먼드 플로이드, 밥 찰스경 등 톱스타들과 함께 토니먼트 100승을 일궈낸 인물이다.

그리고 노먼과 레이먼드 플로이드, 밥 찰스경 등 톱스타들과 함께 토니먼트 100승을 일궈낸 인물이다.

그리고 노먼과 레이먼드 플로이드, 밥 찰스경 등 톱스타들과 함께 토니먼트 100승을 일궈낸 인물이다.

그리고 노먼과 레이먼드 플로이드, 밥 찰스경 등 톱스타들과 함께 토니먼트 100승을 일궈낸 인물이다.

그리고 노먼과